

## 기독교 문화형성

—기독교 학문, 직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Christian Culture Formation

조 무 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obstacles to christian culture formation in Korea and to propose solution to overcome them. The obstracles are classified as internal obstacles in the christian community and as external obstacles outside the christian community. It is proposed that the christian scientific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be organized on a christian foundation and christian world view. The christian scientific community and the christian professional community are important contributors to christian culture. The christian scientific community develops science from within christian world view. The christian professional community apply this knowledge to all of life. These two communities must cooperate together in christian culture formation. Christian University Fellowlabores Association and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tudies are helping to lay a foundation for the christian scientific community.

### I. 서론

문화의 개념은 다양하고 단순하지 않다.<sup>1)</sup> 이곳에서는 문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피하고 문화를 간단히 인간들의 생활양식의 총체로 규정하려 한다. 인간들의 삶을 내면적인 사고와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눈다면 문화는 인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총체로 파악된다.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독교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양식의 총체, 즉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총체로 파악된다.

이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평등, 문명퇴치, 인권존중, 미신타파, 자선사업, 민주발전 등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은 기독교문화를 수용하고 형성해가는 과정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교회, 학교, 선교단체, 기독교 언론 방송기관 등에서 기독교문화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 고, 대의 미션학교는 이런 면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울의 은누리교회 등 몇몇 교회와 한사랑선교회 및 IVF, 고신대와 총신대 등의 신학대학 그리고 숭실대와 한남대 등의 미션학교가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숭실대와 한남대는 각각 한국 기독교문화연구소와 기독교문화연구소를 설치하여 기독교

문화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해와 올해 각각 문을 연 대덕기독교문화센터와 기독교문화민족학교의 활동이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기독교문화운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예수촌 즉 예수생활공동체(예수원, 두레마을, 풀무원, 그루터기)등은 구체적 삶 속에서 기독교문화를 심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기독교 문화형성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감각이 무디어져 있다. 기독교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창1:26,28)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데 대해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수록 인간성의 성숙을 촉진시키고 반기독교 문화의 오염을 쉽게 막을 수 있다는데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신적 풍토에서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기독교문화에 대한 마음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독교계의 내부에서부터 기독교 문화형성의 장애요인을 찾아 제거하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형성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독교 문화형성의 장애요인을 탐구하고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방법으로서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II. 장애요인

### 1. 내적인 장애요인

첫번째로 예수님을 닮아 겸허하고 정직하며 책임지는 기독교인들이 교계에서 소수이고 그나마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지 못한 점이 장애요인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다른 직능과 은사를 가진 몸뚱이 지체들이기 때문이다(롬12:4,5, 고전12:27) 기독교 문화형성은 전체교인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 중심의 겸허하고 정직하며 책임지는 정신을 갖고 있고 직능별로 잘 조직될 때 강력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모은다면 한국교계가 기독교문화를 형성해 가는 데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교회안과 밖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삶의 방식이 그 장애요인이 된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는 거룩한 일이고 생계와 연결된 일터에서 행하는 일은 속된 일이라는 성,속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젖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서 살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힘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자체가 복받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든 간에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요소가 한국교계에 적잖게 스며들고 있다.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 예산의 우선순위나 배정은 한국교회가 교회학의 생활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산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세째 각 교회와 교단 및 전 교계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잘 조직하고 적재 적소에 배분하여 활용하지 못한점이 그 장애요인이 된다. 하나님이 한국교계에 주신 엄청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자원을 방치하여 합리적으로 활



## 필자소개

조무성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조직되고 적절하게 배분되어 활용된다면 좋은 의미에서 한국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는 교계 차원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확보와 배분 및 활용이 수반된다.

네째 교인수, 교회당 크기, 헌금액수 등의 양적개념이 생활의 개혁과 변화라는 질적개념 보다 앞질러 있다는 것이 장애요인이 된다. 기독교계에서 교회부흥의 개념을 위의 양적 척도로 측정하고 목회성공의 개념도 이러한 양적 척도외에 사례비 액수, 자가용 소유 등의 물량적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거듭나고 성화된 정도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성도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목회자의 성실성의 정도가 교회부흥과 목회성공의 일차적인 척도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계의 양적인 성장은 질적인 성장이 밀받침될 때 의미가 있고 힘도 생긴다.

## 2. 외적인 장애요인

첫째 교회와 교단의 지도자들이 정치와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의 들러리가 되거나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장애요인이 된다. 정치를 더러운 장사(dirty business)라고도 하거나 교회와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손상을 입어 기독교문화형성에 걸림돌이 된다. 교회는 정치를 이용해서도 안되고 정치에 이용당해서도 안된다.

둘째 한국전통문화 중 유교의 권위주의와 파벌주의, 샤머니즘의 기복주의, 불교의 유일신 부정 등의 요소들이 그 장애요인이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창조주의 존재와 인간의 인격적 평등 및 책임을 인정하는 기독교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유교의 영향은 한국인에게 교육열을 높여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의 형성에 기여를 한 면도 있다. 그러나 유교의 수직적 인간관계와 공명출세주의 및 파벌주의 등은 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교파분열의 원인 중 개인의 공명심, 지방색, 교권욕 등이 작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은 논리적 사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감정에 전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성령과 축복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한국교계

에 스며든 기복적 신앙은 성령은 감정에만 역사하고 지성과 의지와는 무관한 것 처럼 잘못된 시각을 안겨주고 고난을 통해 올 수 있는 영적축복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유일신 부정의 상대주의는 신앙의 순수성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신앙을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의 본질상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째, 통일교집단과 같은 이단 세력과 좌경세력에 대해 전 교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즉각적이고 근원적인 대응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 장애요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교계는 과거와 달리 대응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결집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속도도 느리다. 특히 이러한 반기독교세력들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반박논리와 비판이론을 축적하는 면이 미흡한 실정이다. 반기독교세력은 기독교인의 힘이 분산되고 대응속도가 지연되며, 비판정신이 희미해 질수록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상의 기회로 삼는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점에 깊이 유념하여 반기독교세력을 막는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힘써야 될 줄 안다.

## Ⅲ. 기독교 학문·직업공동체

### 1. 성 격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기독교문화형성의 보다 종합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기독교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문화형성의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걸보기는 그럴듯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린다. 기독교문화형성의 전제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인간성 회복이다.<sup>2)</sup>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에 뿌리를 둔 신앙(고전15:1-8)<sup>3)</sup>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는 신앙(약2:22)을 통해 타락한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입는 것이 기독교문화형성의 토대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타락한 성품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만심(창3:5, 6)<sup>4)</sup> 행위계약의 내용(창2:16, 17)을 왜곡한 부정직성(창3:2, 3),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성(창3:11, 12, 13)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허함(빌2:

5,6,7) 정직성(사53:9, 요14:6), 책임성(빌2:8, 록22:42, 요19:30)으로 무장하는 것이<sup>5)</sup> 인간성 회복이다.

인간성 회복은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고후5:17, 엡4:24).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가 비정상적이면 인간성 회복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교회는 성경적 교회상을 정립하여 계속 개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그 후손이 자기중심적인 자만심과 부정직성 및 무책임성을 삶의 영역에 표출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문화를 이룩한 것을 라멕의 노래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창4:1-22).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 자만하고 부정직하며 무책임한 사람이 많고 그들이 힘을 가질수록 기독교 문화형성에 역행하는 반기독교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확산해 가는 모습을 역력히 바라볼 수 있다. 눈앞의 우리현실에서 기세를 떨치는 황금만능주의, 인명경시주의, 권력지상주의, 급진좌경주의, 사치풍조, 퇴폐풍조 등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중심적 자만심, 부정직성, 무책임성에 기인한 반기독교문화의 요소들이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접점하고 스스로 갖고 있는 자만심, 부정직성, 무책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문화형성의 선행조건이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구성원은 하나님 중심적인 겸허함, 정직성, 책임성이 구비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세력이 될 때 기독교학문공동체는 기독교 문화형성을 초교파별, 교단별, 지역교회별, 개교회별로 알차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기독교 학문 공동체와 기독교 직업공동체를 연결시킨 개념이다.

기독교문화형성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속에서 적용시킴으로써 나타난다. 기독교문화형성은 너와 나를 포함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존재이유를 가진다. 문화형성이란 혼자서는 이루어 질 수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삶속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취학전에 믿고 초,중,고,대학에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의 방법을 습득해서 그

러한 방법과 지식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안의 삶과 밖의 삶에 대해 괴리나 갈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에서 배운 세계관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며 직장에서는 교회에서 배운 세계관에 입각한 지식과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자연적 우주관을 배우며 현실 사회에서는 경제와 기술로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므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크리스찬의 이원적인 삶의 방식을 지양하고 현실에 강하게 적응하여 기독교 문화를 깊게 심고 넓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공동체인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학문공동체의 이론적인 면과 직업공동체의 실천적인 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이론적 바탕이 철저하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노력이 철저할 때 기독교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강하게 확산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될수록 대학의 전공과 현실의 직업은 계속 분화된다. 그 이유는 현실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전문지식의 습득과 전문가의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공과목과 직업과의 긴밀한 관련성은 법학과 법조인, 의학과 의사, 약학과 약사, 행정학과 공무원, 경제학과 경제인, 공학과 기술자 등에서처럼 수많은 예가 있다. 위의 관련성을 확대시켜 보면 초,중,고의 희망전공학과와 희망직업이 대학의 전공과 현실의 직업과 연결된다. 인문, 사회, 자연의 학문분야와 상응해서 인문분야의 직종, 사회분야의 직종, 자연분야의 직종으로 나눈다면 학문과 직업의 상관관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교회는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그리고 현실 직업인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이론적인 면과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실천적인 면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인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사회의 중간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점에서 자원에 관한 한 무시못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배분하며 관리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 할 교회 안팎의 문제의 성격별로 은사와 재능 그리

고 전문지식과 직업이 분류되고 결합되며 조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해문제라고 하면 학문공동체와 직업공동체에서 관련된 사람을 뽑고 분류하고 연결짓고 조직하면 그들의 재능, 은사 전문지식, 직업적 역량, 시간 등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째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한국교회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기본 전제를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째 기독교세계관에 반대되는 전통문화적 요소들과 반기독교세력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과 반기독교세력이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들어와 있으므로 역시 각계각층을 망라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천적인 면에서 그러한 침투를 막고 그러한 세력들의 존재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어 순수성을 상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학문공동체와 직업공동체에 소속한, 정치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이 해결하면 되지 교회가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단체와 기관들을 서로 연결하며 연합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기독교계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단체가 있으며 그들 각자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어떤 문제에 대해 힘을 합쳐야 할 경우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연합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가 구성되면 소속된 단체들의 역할 및 성격을 쉽게 파악하여 연결하는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기독교학문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주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거나 학생신분에 있는자가 그 대상이 된다. 전자의 종사자는 주로 교수, 연구원, 교사, 목회자 등이 해당되고 후자의 학생은 초, 중, 고, 대, 대학원생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대학의 교원, 대학생, 대학원생은 대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학문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직업공동체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이 아닌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학생이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도 더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예외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은 정치, 경제, 행정, 언론, 교육, 기술, 예술 등 제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의 사회 문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직업분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구성원 중 이러한 두 공동체의 유대와 연결 그리고 조직이라는 면에서 목회자와 교수 및 언론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이 삼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일을 하면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구성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는 현실에 적합하게 신속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초교파적으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결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단별, 교단의 지역단위별, 행정구역별(도, 시, 군, 읍, 면, 동), 개교회별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속적인 구성을 통해 크리스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크기, 난이도, 중요성, 가능성에 따라 공동체의 운영의 묘를 살려갈 수 있다.

## 2. 할 일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위 공동체가 할 가치가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서 대답의 실마리가 나온다. 할 가치가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배제시키는 것이 할 일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가능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할 일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의 원천은 성경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속에서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하고 쉬운 일부터 해결해 가야 한다. 덜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부터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덜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것이 연관성의 약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할 일은 기독교내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교제외부의 문제 즉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후자는 국가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다.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할 일은 일의 성격상 기독교학문공동체가 해야 할 일과 기독교직업공동체가 해야 할 일로 나누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긴밀한 협조와 공동보조를 요구하는 일로 나누어진다.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학문 공동체의 할 일

### 1) 내적인 일

첫째 기독교학문공동체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초연구와 그것에 입각한 응용연구를 하는 것이다. 위의 기초연구는 신학자, 기독교 철학자, 목회자가 맡아야 하고 응용연구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크리스찬이 맡아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초지식과 거기에 입각한 응용지식을 계속 축적해가야 한다.

둘째 학문분야별로 기독교학회를 구성하여 학문발표와 학술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신학회, 기독교철학회, 기독교인문과학회, 기독교사회과학회, 기독교자연과학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해당 전공별로 세부적으로 학회를 구성하고 관련분야의 연구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직신학회, 기독교윤리학회, 기독교정치학회, 기독교의학회, 기독교경영학회 등의 구성과 연구 등이 세부적인 경우이다.

셋째 이러한 기초지식과 응용지식을 토대로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일하는 직업인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기독교인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회 교과과정의 편성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절실하게 요청된다.

넷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바탕이 되는 책을 확보하고 만들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수많은 책들을 분야별, 전공별로 분류하여 교회내에서 아니면 기독교 도서관이나 기독교 문화관을 설립하여 거기에서 해당 성도들이 읽게끔하는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일하는 직장인을 정기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훈련의 시기는 월별, 계절별로 잡는 것이 비교적 무난할 것이다. 훈련방법은 초교과별, 교단별, 교단소속 지구별, 행정구역별, 개교회별로 수련회, 기도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교회내에서는 학문과 직업을 연결시켜 학생들과 직장인들간의 대화나 철야 기도회와 같은 모임도 훈련방법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기독교학문공동체는 학원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떤 교파나 섹터단체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크리스찬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학교라는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학원복음화는 기독교인 학생이 불신 학생에게와 불신 선생에게, 기독교인 선생이 불신 선생과 불신 학생에게 각각 복음을 전함으로써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외적인 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결방향을 정립하며 진단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신학자와 목회자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원리를 제시한다. 기독교철학자는 이러한 관점과 원리를 기독교세계관과 연결시켜 인문, 사회, 자연, 과학자들에게 문제해결의 논리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인문과학자와 사회과학자 및 자연과학자는 이러한 토대를 전제로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각자의 전공지식을 동원하여 학제적 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기독교대학원생은 분야별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정하고 문제진단을 하는 일을 도우며 배우고 기독교대생도 참여하여 돕고 배운다. 이 시대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 (2) 기독교 직업공동체의 할 일

### 1) 내적인 일

첫째 기독교직업공동체는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특히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종류의 직업인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직업공동체는 직업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해답을 찾고 의논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컨대 기독교정치인회, 기독교공무원회, 기독교언론인회, 기독교경제인회, 기독교기술사회, 기독교예술인회, 기독교수회, 기독교군인회, 기독교의사회, 기독교경영인회, 기독교약사회, 기독교체육인회 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각자의 직업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그 뜻을 실현하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직업공동체는 직업별로 또는 유사 직종끼리 정기적으로 기도회, 수련회 등을 실시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셋째 기독교직업공동체는 직업별로 일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

도록 힘쓰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같은 직장에 있고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기술자가 불신기술자를, 기독교경제인이 불신경제인을, 기독교정치인이 불신정치인을, 기독교경영인이 불신경영인을 전도하는 것이 일체감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고 함께 생활하는 직장에서 전도하는 경우 공간적거리나 시간적거리가 단축되어 능률적일 수 있다.

## 2) 외적인 일

기독교직업공동체는 성경적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기독교학문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활용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특히 기독교정치인회, 기독교행정인회, 기독교법조인회, 기독교언론인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독교정치인회와 기독교법조인회 및 기독교행정인회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해결책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입법화 되며 집행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며 기독교언론인회는 정책의 채택과 집행을 지지를 모으는데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학문공동체와 기독교직업공동체는 내적인 일에서나 외적인 일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공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수련이나 기독교 도서관이나 기독교 문화관의 설치 운영 등이다. 전자의 수련에는 좁게는 기독교경제학도, 경제인수련회, 넓게는 사회과학도와 사회과학분야 직업종사자, 인문과학도와 인문과학분야 직업종사자 등의 수련회를 포함한다. 기독교 도서관이나 기독교 문화관을 전국에 가능한한 행정구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면 기독교 문화형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초교파적으로나 교단별 또는 지역의 교회 연합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소규모로는 교회의 기존시설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문공동체와 기독교직업공동체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과 해결을 수행하는 과정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기독교학문공동체에서 문제의 해결방향 정립과 진단 분석을 하는데는 기독교직업공동체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독교직업공동체에서 해결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해결방향과 진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 기독교학

문공동체와 기독교직업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사회의 곳곳에 널려 있다. 기독교학문공동체와 기독교직업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괴리된 것으로서의 문제를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 찾아야 한다. 문제의 중요성순위와 해결가능성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중요하고 해결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내의 어느 한 사람, 특정한 학자나 정치인 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목회자, 신학자, 교수,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기술자 등 다양한 역할의 담당자가 문제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교통사고를 들어보자. 목회자와 신학자는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는 성경적 근거 - 천하보다 귀한 생명(마16:26)을 제시한다. 기독교 철학자는 성경적 근거와 원리에 입각하여 관련 학문을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논리적기초를 놓아준다. 기독교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심리적,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기독교 정치학자나 행정학자는 정책적 요인과 교통행정상 요인을, 자연과학자는 차체와 도로에 대한 기술적인 요인을 기독교 철학적 바탕위에서 탐구한다. 기독교 언론인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 기독교적 문제분석과 처방에 대한 글을 실는다. 기독교 정치, 행정인은 입법과 정책 및 집행을 하면서 기독교적 처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독교 학문 직업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인간이 공존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인 것이다. 교통사고, 공해, 노사갈등,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퇴폐향락, 사치풍조, 호화혼수, 부정식품, 파대광고, 낙태, 문어발식 기업확장, 마약 등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예가 된다.

## 3. 핵심공동체

### (1) 성격

지금까지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의 성격과 할 일을 살펴보았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계통의 학교와 단체들이 있다. 기독교학문공동체와 기독교직업공동체의 소속대상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다. 앞으로 한국 교계에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할 일을

계속해간다면 기독교 문화는 견고히 정착되고 강하게 확산될 것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사회의 문제는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학문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기독교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초교파적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모체로서 핵심공동체의 형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핵심공동체란 말은 기독교학문 핵심공동체 또는 기독교직업 핵심공동체를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두 공동체를 연결시킨 기독교 핵심학문 직업공동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핵심공동체는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를 전국적으로 결성하고 확장하며 교단별, 지역별, 행정구역별, 개교회별로 형성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기능을 하는 중추적 공동체이다.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의 형성을 선도하는 선구자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핵심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구성과 할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심공동체의 할 일은 핵심공동체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할 일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렇게 보면 핵심공동체 구성은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변수다.

그러면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첫째 예수님에게 눈동자가 고정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는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앞에 겸손하고 정직하며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계속 성화되어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으면 인간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곳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자기가 갖는 힘이 많을수록 오만하고 부정직하며 무책임한 사람들은 조직을 봉사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장으로 사용한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힘이 있는 자 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며 더 책임을 지려는 봉사자들(마 20:25-28)로 핵심공동체가 꾸며져야 한다. 이러한 핵심공동체의 구성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모으는 것은 성령의 하나로 매는 줄(고전 12:13)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동참할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는다.

둘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먼저 작은 동심원부터 결속시키고 그다음 큰 동심원으로 나아가는 내실 후 확장의 방법으로 구성해야 한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마17:1-8)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을 확대시켜 나갔다. 처음부터 조직의 확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조직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쉽다. 조직을 확장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내적인 결속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특히 교회나 기독교기관이 예수님 중심의 내적인 결속력이 없이 출발하여 확장을 계속하면 반드시 변질되며 그러한 교회나 기독교기관들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셋째, 첫번째와 두번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문과 직업에 관련된 기존조직을 통합, 연합, 쇄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핵심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중심적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듯이 기존조직도 이러한 시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수님 중심의 인간구성방법과 예수님 중심의 조직확대 방법 즉, 내실 후 확장 방법은 핵심공동체를 형성할 때까지 계속 유념할 사항이다. 기독교학문직업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조직중 예수님 중심의 신실한 조직은 최소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연합체의 성격은 연합체를 구성한 조직이 각기 개성을 갖는 경우에 따라서 공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체는 구성조직이 갖고 있던 조직의 개성을 버리고 여러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이원적인 목표, 구조, 기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연합체의 형성을 예로들면,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를 가칭 기독교학문동역회라는 연합체를 구성하면 두 조직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기능에 대해서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효과와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조직이 예수님 중심보다 인간중심적 요소가 많을 때는 그 조직 구성원을 예수님중심의 인간으로 대체함으로써 조직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쇄신된 조직은 핵심공동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학문과 직업에 관련된 단체중 쇄신될 조직이 많다. 경우에 따라 연합을 필요로 하거나 통합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조직이 되든 그 구성원이 예수님 중심적이면서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 의식을 갖고 산다면 기존조직은 핵심 공동체에 포함시킬 수 있고 핵심공동체의 형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네째 초교파적 핵심학문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성경적 입장에 선 단체들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수모임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한국 기독교문화연구소, 기독교 문화연구소, 복음주의 신학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창조과학회, 예수시대 등 복음적 신앙에 터를 둔 단체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수모임,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한국 복음주의협의회는 이러한 연합을 위해 앞장서야 하고 그러한 역량을 가진조직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초교파적 핵심직업공동체의 출발을 어떤 단체를 주축으로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 현 단계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관련된 단체들의 구성원이 예수님 중심의 인물인지 또 어느 정도 예수님 중심에 가까운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직업과 관련된 기독교 단체를 대충 적어보면<sup>8)</sup> 한국국제기드온협회,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중앙연합회, 전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한국기독교예술문화협회, 한국기독교 직장복음선교회, 한국크리스찬 문학가협회, 한국교통신교회,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 등이다.

## (2) 할 일

첫째, 핵심공동체는 현실에 알맞는 공동체내의 공식적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성실한 구성원이 확보되었을 때 공식적 기구를 만들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최소한 정책부서, 자원관리부서, 실행부서와 같은 기본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부서는 문제분석과 정책개발프로그램작성을 담당하고 자원관리부서는 프로그램수행을 위한 정보보조자원 및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실행부서는 프로그램과 자원을 결합시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이러한 부서들은 문제해결과정에 나타는 각 단계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 부서편성은 핵심학문공동체와 핵심 직업공동체가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핵심 학문공동체의 실행부서에서 연구분과와 교육분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초교파적 핵심 공동체는 내실과 확장을 위해 기독교 인적자원의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조직적으로 행하는대는 공동체

내에 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선 복음적 입장에선 영향력을 가진 훌륭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일이 시급히 해야할 일이다. 잘 알려진 사람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찾아서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전공별, 학교별, 교회별, 지역별로 분류된 기독교수 명부나 기독교사 명부, 직종별 지역별, 교회별로 구성된 기독교직업인 명부등이 작성되면 핵심 공동체의 형성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세째 예수님 중심에 보다 가까이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가급적 결속하도록 도우는 것이다.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은 핵심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특히 외부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에 복음적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위치는 중요하다. 이 분들이 결속하는데는 각자가 중요한 차이와 중요하지 않은 차이를 구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차이 때문에 협조나 연합이 안된다면 비합리적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적 신학자와 목회자가 굳게 뭉치는 것이 핵심공동체의 형성기반을 강화시킨다.

네째 기독교학문 핵심공동체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앞에서 지적한

1.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2.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도서 보급
4. 기독교세계관 교육 훈련
5. 학원 복음화
6. 교단별, 교회별, 학문공동체 형성의 지원
7.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1, 3, 4의 경우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창조과학회, IVF 등이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기독교 핵심직업공동체도 마찬가지로

1. 직장인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삶을 살도록 지원
2. 직업별 수련회 개최
3.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의 실천과 복음전도의 지원
4. 교단별, 교회별, 직업공동체 형성의 지원
5.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의 검토와 실질적 적용 노력 등을 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 핵심 학문공동체는 복음적 교회의 대학부, 복음적세콜, 해외에 나간 기독교유학생 단체, 복음적 기독교수 단체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정기적으로 수련회를 가지므로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나아가 복음적 입장에 선 교단별로 전국대학부 연합의 결성이나 지역단위의 대학부 연합을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성장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급제 기독교 핵심 직업공동체는 복음적 입장에 선 교단에서 직업별로 조직을 형성하고 기독교 직업인들을 정기적으로 훈련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기독교문화형성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처방안으로 기독교학문, 직업공동체와 모체로서의 핵심 공동체를 실제적응과 연결하여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인간성 회복<sup>9)</sup> 이 이러한 공동체의 추구목표인 기독교 문화형성을 전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본 논문은 관련 문헌과 경험적 자료 특히 기독교직업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의 현황분석에 대해 미흡하다는 것이 한계로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려고 한다.

#### (주)

1. 조무성, 한국행정인 연구 : 인간형, 형성환경, 태도의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pp.75-76

몇몇 학자들의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다. 문화에 대한 고전적 정의로 유명한 Tylor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다른 능력 및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총체(complex whole)라고 한다. Ralph Linton은 특별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전파되는 학습된 행동과 행동의 결과들의 형태(configuration)이라고 한다. Victor Barnouw는 언어와 모방의 수단을 통해 어느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다소 고정된 유형의 학습형태(more or less stereotyped patterns of learned behavior)의 모든 모습(configurations)인 집단의 생활방식(the way of life of a group of people)이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Anthony F.C. Wallace는 사회의 개별적 구성원들에게 보다 높은 확률로 사용된다고 말해질 수 있는 행동양식(ways of behavior)이나 문제해결의 방식(techniques of solving problems)이라고 한다.

2. 김영한,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문화(서울: 풍만, 1987), pp.40-41 신율적 문화의 진정한 출발점을 인간자신의 진정한 인간됨에 두고 있다.

3. 김홍전, 복음이란 무엇인가(진주:성약, 1987) 이책에서는 고전15:1-8절의 강해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4.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 A Christian Interpretation (N.Y.: Charles Scribener's Sons, 1964), pp.186-207 인간자신의 한계를 이탈하는 자만심( pride of power), 지식의 자만심( pride of knowledge ), 도덕의 자만심(pride of virtue)의 세 범주로 나누어 다루 있다.

5. 아더호즈 저, 이승구 옮김, 기독교세계관(서울: 엠마오, 1987), pp155-182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관계적 존재와 책임적 존재라는 입장을 취한다. 관계적 존재는 하나님과의 의존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함과 직결된다. 정직성이 겸허함과 책임성에 의해 뒷받침 되지만 정직성도 이 양자를 촉진시킨다.

6. 리차드.미들튼, 브라이언.왈쉬 공저, 황영철 옮김, 세상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8), pp.225-226 그리스도인의 학문적 연구들은 의식적으로 학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7. 조무성, 앞의 논문, pp18-23

8. 크리스찬 라이프, 한국교회신보사, 교회주소록(1989), pp.69-119

9. 조무성, "우리시대의 문제와 인간성 회복" 크리스찬저널, (1989(7)), pp.30-33

#### Abstract